

K-반도체 훈풍에 정책 기대감까지... 코스피 '1만피' 보인다

AI 수요 타고 실적 눈높이 상향
상법 개정에 지배구조 개선 기대
낮은 PBR에 저평가 매력 부각
조선·방산·로봇으로 온기 확산
급등락 장세는 향후 부담 요인



ChatGPT로 생성한 '사상 최고치 랠리 속 확대되는 '코스피 7000 시대' 기대감' 관련 이미지.

“한국의 ‘개미’들 사이에 달아오르는 증시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포모(FOMO) 심리가 확산하며 앞다퉀 증시로 몰려 들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 2월 24일)

“미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주가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국회 업무 보고, 2월 24일)

코스피 ‘칠천피(지수7000) 시대’가 열렸다. 한국 증시에 대한 여러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한국 증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스트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졌고, 작년 하반기 이후 인공지능(AI) 혁신발 ‘반도체 수퍼 사이클(초호황기)’ 기대가 시장에 퍼진 영향이란 평가다. 하지만 반도체의 힘으로 오르는 증시와 하루에도 수차례 급등과 급락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시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주가가 장부가치에도 못 미치는 종목이 늘려 오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K-반도체의 힘, 이제 시작이다

코스피 상승세는 거침이 없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올해 들어 이날까지 상승률은 71.35%로 주요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넘어선데 영국(3조9900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주요국 증시 순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한국 증시의 차별화된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기보다 기업들의 실적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 등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국 투자 전략 보고서에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500포인트까지 높여잡았다. IT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에 근거해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는 7000포인트로, 강세장 시나리오는 8500포인트로 각각 높였다. 이란전 직전인 지난 2월 전망치보다 각각 1000씩 높아진 수치다. JP모건은 “코스피는 다시 6000을 넘어서며 전쟁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며 “올해 이익 추정치가 37% 급등했고 이는 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포인트로 높여잡았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와 산업재 중심의 펀더멘털 개선을 반영해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220%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전략가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48% 수준의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기술 강세는 한국만의 얘기도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동 분쟁과 분리된 강력한 엔진인 AI 열풍에 올라탄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

다”고 했다. 실제 주요국 증시에서도 연일 주가가 급등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종목의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S&P 500에서 AI 관련 기업 비율은 약 45%인데,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말(약 25%)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AI발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이 43%를 넘어섰다. 올해 초만 해도 이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대만도 반도체 기업 TSMC가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쯤이다. 일본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어드밴스드와 컴퓨터 칩 장비 제조업체인 도요일렉트론을 합친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한다.

◆상법개정 등에 얽고 ‘1만피’ 고지 밟을까
이제 코스피의 화두는 8000선을 넘어 1만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다. 주요 증권사들의 전망은 엇갈렸지만, 반도체 랠리가 당분간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질 경우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은 1.4배다. 전 세계 증시 평균(PBR 3.1배), 아시아 신흥국 평균(PBR 2.0배) 보다 낮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당순이익의 컨센서스(시장 예상치)가 600조원을 돌파했고, 반도체 주당순이익(EPS) 변화율을 필두로 이익추정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지수 상승 주도 업종 중 반도체만 급격한 EPS 상승 탓에 지수 밸류에이션 회복은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근거에는 기초체력이 자리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금융시장 전반의 리레이팅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피 시장의 실적 개선은 반도체 중심에서 방산, 조선, 기계, 정유, 에너지, 로봇 등으로 확산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KB증권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호전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5% 증가한 792조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4% 된 60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2027년에는 영업이익의 1044조원까지 예상하면서 10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봤다.

세 차례 상법 개정도 코스피가 ‘1만’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전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소액 주주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했다.

JP모건은 “(지배구조 관련) 입법 노력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실제 영향은 철저한 실행과 지속적인 감시로부터 온다”이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과 유사한 20% 수준의 ROE 국가들과 PBR을 비교하면, 향후 코스피는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등과 같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PBR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전 사이클 진입으로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야기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했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간판 주식들이 하루 사이 10%가 오르고 내리는 시장은 흔치 않다. 그런데 요즘 한국 증시는 그 보기 드문 장면을 몇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한 나라의 자본시장이 카지노 활동의 부산물이 되어버리면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투기가 시장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란 얘기다.

최근 한국 증시를 보면 이 경고가 낫설지 않다. 급등과 급락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증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판’에 가까운 모습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얼마전 코스피의 급등락을 두고 “전형적인 버블 시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도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 지수(VKOSPI)는 이날 7.52% 상승한 60.07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국립부경대학교 개교 80주년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용기와 혁신, 도전으로 미래를 여는 강한 대학!’
Young Leaders of Pukyong, Let Your Dreams Soar

부산 최초의 대학, 국립대학 최초의 통합이라는 도전의 역사 위에 끊임없이 혁신의 발자취를 새겨 온 국립부경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 | AX혁신대학 | 글로벌혁신대학으로
동남권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개교 80주년 기념 및 미래비전 선포식
2026. 5. 8 (금) 09:30 대학본부 대회의실
블루 프린터 어워드 시상

개교 80주년 기념 오픈데이
2026. 5. 9 (토) 실내체육관
제18회 자랑스러운 부경인상 시상

국립부경대학교